

2022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추가공모) 지원결정 세부내역

■ 선정결과

2020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최종 지원대상자 명단(총 100명)

(단위 : 원)

전체연번	분야별연번	세부분야	신청자명	휴대폰번호(뒷4자리)	지원결정액(원)
1	1	시	강우근	14*1	2,000,000
2	2	시	고선경	12*3	2,000,000
3	3	시	김도경	42*5	2,000,000
4	4	시	김명인	60*1	2,000,000
5	5	시	김순옥	22*4	2,000,000
6	6	시	김은경	85*3	2,000,000
7	7	시	김은지	43*7	2,000,000
8	8	시	김일영	55*0	2,000,000
9	9	시	김종연	55*6	2,000,000
10	10	시	문성해	74*2	2,000,000
11	11	시	박규현	45*0	2,000,000
12	12	시	서현동	95*9	2,000,000
13	13	시	석미화	46*3	2,000,000
14	14	시	설현민	10*9	2,000,000
15	15	시	유수연	54*2	2,000,000
16	16	시	유현성	35*9	2,000,000
17	17	시	이서영	02*1	2,000,000
18	18	시	이주현	69*8	2,000,000
19	19	시	이진영	66*7	2,000,000
20	20	시	전영미	31*9	2,000,000
21	21	시	조송이	96*7	2,000,000
22	22	시	차유오	91*4	2,000,000
23	23	시	최미숙	52*3	2,000,000
24	24	시	최백규	10*9	2,000,000
25	25	시	하미숙	10*1	2,000,000
26	26	시	한성희	84*0	2,000,000
27	1	시조	박민교	33*6	2,000,000
28	2	시조	이성목	62*1	2,000,000
29	3	시조	이태순	57*8	2,000,000
30	4	시조	홍성란	20*0	2,000,000
31	1	소설(단편)	강태식	92*4	2,000,000
32	2	소설(단편)	김다솔	20*4	2,000,000
33	3	소설(단편)	김득진	61*2	2,000,000
34	4	소설(단편)	노경진	86*5	2,000,000
35	5	소설(단편)	문서정	65*0	2,000,000
36	6	소설(단편)	박규민	77*5	2,000,000
37	7	소설(단편)	박나영	35*8	2,000,000
38	8	소설(단편)	박동현	55*6	2,000,000
39	9	소설(단편)	박종선	08*0	2,000,000
40	10	소설(단편)	서성란	16*3	2,000,000
41	11	소설(단편)	서정아	42*3	2,000,000
42	12	소설(단편)	오성은	82*7	2,000,000
43	13	소설(단편)	이경란	43*4	2,000,000
44	14	소설(단편)	이상희	12*6	2,000,000
45	15	소설(단편)	이서아	73*9	2,000,000
46	16	소설(단편)	이은영	81*4	2,000,000

47	17	소설(단편)	이태순	01*4	2,000,000
48	18	소설(단편)	이화정	72*6	2,000,000
49	19	소설(단편)	임아라	57*9	2,000,000
50	20	소설(단편)	장성욱	77*0	2,000,000
51	21	소설(단편)	장진영	62*3	2,000,000
52	22	소설(단편)	장혜경	87*5	2,000,000
53	23	소설(단편)	조향숙	89*6	2,000,000
54	24	소설(단편)	최정애	00*6	2,000,000
55	1	소설(장편)	김수진	81*0	2,000,000
56	2	소설(장편)	김은주	62*0	2,000,000
57	3	소설(장편)	김은진	93*9	2,000,000
58	4	소설(장편)	전민식	72*3	2,000,000
59	1	동시	강순미	12*6	2,000,000
60	2	동시	김규학	82*9	2,000,000
61	3	동시	김대성	33*0	2,000,000
62	4	동시	김철순	27*0	2,000,000
63	5	동시	박승우	46*2	2,000,000
64	6	동시	손인선	98*8	2,000,000
65	7	동시	유희윤	63*1	2,000,000
66	8	동시	정광덕	38*5	2,000,000
67	9	동시	차승호	17*7	2,000,000
68	10	동시	최중녀	62*1	2,000,000
69	1	동화(단편)	김보영	95*2	2,000,000
70	2	동화(단편)	김은희	65*2	2,000,000
71	3	동화(단편)	오민영	73*8	2,000,000
72	4	동화(단편)	이병승	75*4	2,000,000
73	5	동화(단편)	이영미	67*9	2,000,000
74	6	동화(단편)	이윤미	13*1	2,000,000
75	7	동화(단편)	최미정	65*2	2,000,000
76	1	동화(장편)	박그루	03*0	2,000,000
77	2	동화(장편)	장은영	70*1	2,000,000
78	3	동화(장편)	정인순	94*0	2,000,000
79	4	동화(장편)	한희정	67*9	2,000,000
80	1	수필	권담희	52*0	2,000,000
81	2	수필	김순경	32*4	2,000,000
82	3	수필	박시윤	24*7	2,000,000
83	4	수필	신혜숙	69*2	2,000,000
84	5	수필	유서연	85*0	2,000,000
85	6	수필	이남희	23*2	2,000,000
86	7	수필	이상권	64*3	2,000,000
87	8	수필	이양섭	08*0	2,000,000
88	9	수필	장미숙	27*7	2,000,000
89	10	수필	정세연	31*2	2,000,000
90	11	수필	조동성	31*1	2,000,000
91	12	수필	최종숙	42*9	2,000,000
92	1	평론	김효숙	36*9	2,000,000
93	2	평론	황혜경	25*5	2,000,000
94	1	희곡	김연재	48*7	2,000,000
95	2	희곡	오태영	48*4	2,000,000
96	3	희곡	이미경	55*6	2,000,000
97	4	희곡	이민구	13*2	2,000,000
98	5	희곡	이원희	70*5	2,000,000
99	6	희곡	조정빈	59*7	2,000,000
100	7	희곡	황광은	35*4	2,000,000

■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시/시조A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시/시조A 분과 지원심의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2022년 6월 13일(월) 13:00 ~ 15:30,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올해부터 기존의 '작품집 발간지원 사업'에 더하여 '발표지원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2개 유형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중 발표지원 사업의 목적은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 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발표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본 사업은 기존의 권 발간지원보다 적은 분량의 미발표 원고를 대상으로 2백만원 지원금 및 발표기회를 제공하여 작품집 발간까지 선순환, 연계함으로써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사업 시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조 분야의 신청 건수가 800건을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시·시조 A분과에서는 그중 절반의 작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세 명의 심의위원은 각자 사전에 모든 작품을 검토 완료한 후 심의 당일 예술가의집 회의실에 모여서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대상 작품은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무기명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오직 '작품의 문학적 수준'(100%)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무기명이라는 조건을 완수하기 위한 문학지원부의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품 본문에 이름이 노출되어 결격 처리된 경우가 있었음을 안타까움과 함께 밝힌다.) 무기명과 문학성이라는 조건은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었지만, 심의위원들에게는 여간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문학성이라는 것이 외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합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포를 파고 들어가면 심해처럼 깊고 어두운 것이어서, 심의과정은 심의위원 각자의 문학성에 대한 생각을 의심하고 성찰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작가의 심의대상 작품이 7편이라는 조건은 문학성을 판단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되어 주었다. 7편의 미발표 작품을 한 자리에 펼쳐 살펴보면 고른 완성도를 검증할 수 있었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의식과 미감, 새로움과 설득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위권 작품 중에는 세 명의 심의위원에게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도 있었지만, 세 심의위원의 평가가 각기 다른 조합으로 변주되면서 갈리는 작품들도 꽤 있었다. 현장에서 거듭 작품을 재확인하면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이어진 후에 시 13건, 시조 2건을 최종 선정할 수 있었다.

오랜 토론을 거쳐 선정된 작품들은 사실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한 명의 작가가 사물 및 세계와의 대결을 통해 자신의 언어와 미감을 조직해내는 일이 얼마나 치열한 과정이며, 그 결과물이 고유한 성취에 도달하여 독자의 정서를 건드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삶의 상투성을 뒤집으려는 언어 실험이 장식적 수사의 과잉에 그치는 장면, 일상과 현실을 포착하려는 시도가 개인적 상념의 술회로 풀어지는 장면은 심의위원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시는 투박한 단도부터 화려한 장검까지 무엇이든 다 휘두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무언가를 벨 수 있는가는 도구에 달려 있지 않을 것이다.

상당한 물량의 작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읽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고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토록 다양하고 고유한 목소리들의 향연을 즐기면서 아직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시인의 책상에서 바로 올라온 작품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다. 발표지면이 부족하고 때로는 지면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현실에서, 본 사업이 소외된 작가의 창작욕을 북돋고 미발표 작품에 대한 첫 지지를 보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지원해주신 더 많은 작가들에게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시/시조A 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시/시조B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시/시조B 분과 지원심의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2022년 6월 13일(월) 13:00~15:30, 대학로 문학지원부 사무실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원제도이다. 이는 그동안 소수에게 돌아갔던 지원금의 수혜를 보다 많은 시인에게 확장하고, 또한 선정된 작품들을 아르코와 협의된 다양한 플랫폼에 일정시간 노출시킴으로써 많은 독자들을 만나게 하기 위한 시도이다. 결국, 많은 시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열게 해주는 것이 이 새로운 지원제도의 목적이다.

처음 시행된 제도였지만 응모된 작품 건수는 총 800건이 넘었으며 시/시조B 분과에서는 382건의 시와 시조를 심의했다. 각 7편씩 382건이니 심의위원에게 도착한 작품 편수만 2,674편 이상이었다. 심의위원들은 익명으로 도착한 시를 받은 날부터 꼼꼼하게 읽고 그 중에 우수한 작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일주일 이상 지속했다.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반면에 다양한 작품을 읽으며 수많은 시심을 엿보는 은밀한 작업이기도 했다. 심의위원이기 전에 시를 쓰는 창작자로서 도착한 시편의 우열을 가리는 작업이 익명의 인물에게 송구하면서도 무거운 일이었음을 밝힌다.

2천여 편이 넘는 시와 시조들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뉘었다. 첫째, 기시적이고, 익숙한 정서로만 끝나는 시, 둘째, 대상을 관찰하고 새로운 시선과 발견이 있었지만 깊은 내면에 닿지 못하고, 대상으로만 서술된 시, 셋째, 관념적이고 거시적인 대상을 가져와 교훈적인 메시지로 끝나버리는 시, 넷째, 새로운 언어를 가져왔지만 감상적 진술에 집중해 독자와 공감의 교집합을 찾지 못한 시. 이런 시들은 깊이 있는 심의 대상으로 끌려오지 못했다. 심의위원들은 고요하지만 탄탄하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시에 집중했다. 치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시편들은 감각의 층위가 달랐지만 동일하게 심의위원의 눈에 띄었다.

심의위원들은 혹여 우수한 작품이 탈락하지 않도록 오랜 시간 시를 읽었다. 뛰어난 작품이 눈에 띄어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나갔지만, 나머지 시편들에서 심한 편차를 보여 아쉽게 제외된 시들도 있었다. 사전 심의에서 동점을 받은 작품들은 현장에서 다시 작품을 읽으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오랫동안 의견을 모았다.

응모작이 많았던 만큼 선정되지 못한 분이 다수일 것이다. 위로와 송구한 마음을 보내며 다음 공모에 선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선정되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

시/시조B 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소설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소설 분과 지원심의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2022년 6월 13일(월) 16:00~18:00,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022년 아코문학창작기금 소설 분야 <장편, 중단편 분야> 지원심의에서는 장편소설 32건, 중단편 소설 253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응모 원칙에 따라 모든 응모자의 미발표 작품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었다. 기 등단자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만큼 대체로 수준 이상의 작품들이었고, 그래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름, 나이 등 응모자의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철저한 블라인드로 진행하는 심사였던 만큼 심의위원들은 오직 작품성만에 집중했다. 판단기준은 '심의기준의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정하였다. 세 명의 심의위원이 각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채점한 것을 바탕으로 심의회의에서 함께 토론하고 채점하여 합산, 평균하여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올해 응모작들의 작품 경향을 보면, 코로나 시국을 반영한 전염병·기후위기·실업 등을 주제로 한 작품, AI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SF, 화랑·단군·임진왜란 등에 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소설, 홈쇼핑·물류센터 등의 우리 시대 노동 현실을 짚어주고 있는 리얼리즘 소설, 외국여행을 배경으로 우정과 사랑을 그려나간 작품, 민감한 정치현실과 이념성을 다루고 있는 작품, 20대 청년들의 빈곤과 투쟁을 그리고 있는 소설, 돌봄노동과 가족문제를 담고 있는 소설, 아티스트의 미학적 자의식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소설, 유명 작가에 대한 상상력을 모티브로 한 소설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이들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내면의 고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진정성과 문학적 열정으로 가득한 한국문학의 현장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

수준 이하의 작품을 찾아볼 수 없는 지원작들을 대상으로 한 심의는 예상보다 어려웠지만, 검토하는 내내 작가들의 신선한 에너지와 열의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뜻밖의 즐거움이었다. 선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상 작품을 검토하였다.

첫째, 문장이 문장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의식과 미학적 구성력과 합치되는가. 뛰어난 문장력은 작품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데 일조하고 부합하는 것이어야 의미있다. 둘째, 일상언어와 문학언어를 구분하고 이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가. 최근 범람하는 영상콘텐츠,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소설에도 일상적인 대화, 장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학은 영상, 브이로그와는 다른 매체로 독자적 매체 미학을 추구하는 바, 일상적 대화와 장면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곤란하다. 누구나 글쓰기가 가능한, '독자발굴의 시대'에 미학적 구성에 기여하지 않는 과잉의 일상언어, 장면들을 덜어내고 압축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더욱 절실하다. 셋째, '역사소설의 경우 사료 수집, 연구 등의 수고와 별도로 과거 역사 소재가 현재 소환되어야 하는 이유와 공감대를 제시하고 있는가'이다. 화려한 문장과 풍부한 사료, 탁월한 구성력 등은 그것 자체로 역사소설, 혹은 개별 작품의 작품성을 보증해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판타지, SF의 경우에도 새로운 상상력이 우리 시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넷째, 장르소설을 겨냥하는 경우, 장르문법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이 문법을 통해 독창적인 지점을 성취해내고 있는지이다. 세목이 흥미로운 경우도 있었지만, 장르소설 또한 문학이라는 점에서 클리셰를 반복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장르문법을 통해 새로운 지점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섯째, 상징과 비유 등의 장치가 돋보이는 판타지류의 소설에서 이들 장치가 지나치게 노골적이거나 모호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작가가 새롭게 제시한 상징과 비유는 그것 자체로 작품에 흥미를 불어넣지만 그것이 끝까지 작품 구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밀도 있게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블라인드 심사인만큼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심의위원 간 미학적 기준이나 판단이 달라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작품이 있을 수 있지만, 위원들 모두 여느 문학상 심사 못지않게 숙고를 거듭했다. 선정된 작품이나 그렇지 못한 작품이든 우리 한국문학의 풍요로운 자산임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이 열정들이 앞으로 한국문학을 더 넓고 심오한 지평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소설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아동청소년문학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르고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아동청소년문학 분과 지원심의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2022년 6월 14일(화) 13:00~15:00,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창작자들의 작품발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공모 아동청소년문학 분과 동시 부문에 115건, 동화 청소년문학 중단편 부문에 79건, 장편 부문에 49건이 접수되었다.

무기명 미발표 작품으로 문학적 완성도가 작품 심의의 주된 기준으로, 작품이 새롭고 독창적인가, 새로운 형식의 시도가 돋보였는가, 작품이 주제 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주제는 시대와 아동청소년에 맞게 적절한가, 하는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중·단편부문과 장편부문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견해가 대체로 비슷한 지점에 있어 무리없이 중단편 7건, 장편 4건을 선정하였다. 동시의 경우,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다른 경우, 작품을 다시 확인하고 논의,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10건의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동시 부문은 무엇보다 익숙하고 안정적인 시들이 주를 이루었다. 기성발표 작품들이 이미 보여준 패턴을 반복했거나, 관념에 머무는 경우도 많았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시선도 주된 제재로 이용이 되었는데, 기존에 다루었던 소재나 형식이라면 자신만의 치열한 세계를 형상화해내는 힘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간혹, 한두 작품에서 두드러진 성취를 이룬 경우도 있었으나, 나머지 작품이 그에 못미쳐 시인의 역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평범한 소재이지만 아이다운 눈으로 천진하고 재기발랄하게 표현하고, 섬세한 관찰력으로 시적 형상화를 이뤄낸 작품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동화, 청소년 문학 부분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시도, 참신한 소재를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두드러졌다. 중·단편과 장편부문 모두 SF문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방식의 SF적 접근이 있었다. SF라는 장르 자체에 충실한 부분뿐 아니라, SF와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과감하게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발상보다 더 중요한 건, 작품의 완결성으로, 보다 촘촘하고 섬세한 개연성이 요구된다.

옛이야기에서 소재를 가져온 판타지, 의인동화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해체된 가족, 그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형태, 왕따와 폭력, COVID-19라는 불안한 환경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역사적 사건에서 소재를 가져온 작품, 생활 밀착형 판타지들이 줄어든 것이 이번 공모의 특징이었다.

참신한 소재와 형식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지점은 작품의 완성도이다.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주제 의식, 그걸 표현해내는 작가만의 세상, 그 모든 걸 뒷받침하는 건 탄탄한 문장력이다. 거창한 소재나 주제 의식이 없더라도, 작품 자체만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 논리와 개연성을 확보한 작품, 그걸 표현해내는 작가만의 문장이 있는 경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학은 문장으로 모든 걸 표현해내는 장르이다. 저학년부문이라 하면, 그에 알맞은 문장과 시선이 필요하다. 고학년, 청소년 문학부문에서도 작가만의 문장의 맛, 빛깔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심의는 이러한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촘촘한 서사를 이뤄낸 작품들, 서사의 개연성을 확보해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작품들을 골라내는 과정이었다.

아동청소년문학 분과 심의위원 일동

■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수필/평론/희곡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상반기 수필/평론/희곡 지원심의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2022년 6월 14일(화) 16:00~18:00,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수필, 평론, 희곡을 함께 심사한 이번 심의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이 각축을 벌이며 한국문학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가들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작품의 발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인당 2백만원 정액을 지원하고, 온라인 매체에 발표기회를 연계해 드리게 됩니다. 심의작은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미발표 작품이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무기명 심사하였으며, 오직 작품성을 기준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수필 분야에서는 다양한 소재와 형식을 실험한 작품들이 다수 보였습니다. 최근 출판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듯, 팬데믹 이후의 자기 발견과 잃어버린 일상의 소중함에 관한 글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수필 분야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문학적인 완성도와 소재의 독창성, 문체의 미학적 성취이기에, 소재와 상관 없이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수필 또한 문학이기에 문체의 독창성과 장르적 고민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일상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가볍게 묘사한 글이나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보여주지 못하는 글들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독창적인 심리묘사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면서도 풍요로운 문체적 참신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론 분야에서는 응모작이 줄어들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준은 높았습니다. 두 편의 미발표 평론을 완성도 있게 집필하여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평론에서는 고른 성취를 보여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소설이나 시에 대한 평론들이 늘어나 새로운 감각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 추후에는 평론 분야에도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기를 바랍니다.

희곡은 문학과 연극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희곡은 갈등 구조를 바탕으로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반전을 맞이하면서 파국을 맞는다는 문학적인 완결성, 제한된 시·공간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공연을 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거나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장르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희곡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의 무대화라는 측면에서 공연이 가능한 작품을 선정하기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설처럼 대사를 나열하거나 지문을 생략한 작품, 드라마나 시나리오에서처럼 잦은 공간 전환과 카메라 앵글을 조작하듯이 장소나 신체의 한 부분을 클로즈업 하는 표현기법을 쓰는 작품 등 무대화가 부적절한 작품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작가가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연출가나 연기자, 혹은 관객들이 개입할 여지를 두고 생략과 압축, 복선을 장치하고 비유와 정제된 구어체의 대사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인물을 형상화 해내는 우수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현대의 복잡다단한 세상을 그리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거나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시의성 있는 작품들이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심의 결과 수필 분야는 119건의 심의대상 중 12건, 평론 분야는 9건의 심의대상 중 2건, 희곡 분야는 74건의 심의대상 중 7건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선정되지 못한 작가에게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번 사업에 지원해 안전하게 심의를 진행하게 해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필, 평론, 희곡 분야 심의위원 일동